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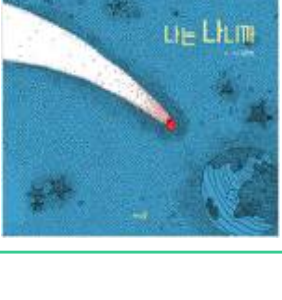










2022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걷다 보면	이윤희	글로연	2021	
2	굴이	서지현	책 읽는 곰	2021	
3	길어도 너무 긴	강정연	길벗어린이	2021	
4	나는 나니까	김현례	바우솔	2021	
5	나는요	김희경	여유당	2019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6	<div>딱 하루만 고양이</div> <div>원혜영</div> <div>우주나무</div> <div>2021</div>	<p>사랑스러운 고양이와 함께 하는 상상 놀이는 집과 동네를 벗어나 들판과 바다로 막힘없이 이어지고 즐겁기만 한데, 아이는 이내 현실로 돌아온다. 물론 여전히 고양이가 되고 싶다. 그런데 왜 딱 하루만일까? 30년 판화작업의 진수를 보여 주는 원혜영 작가의 첫 창작그림책이다.</p>	
7	<div>맛있는 건 맛있어</div> <div>김양미</div> <div>시공주니어</div> <div>2019</div>	<p>이야기는 주인공 '나'의 소소한 관찰로 시작한다. 새는 감을 쪼아 먹고, 고양이 아노는 오이를 훔쳐 먹는다. 엄마는 사랑초에게 물을 주지만, '나 선인장'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 어린 동생 연우는 뭐든 입으로 집어넣을 만큼 어리다. 오늘은 단추를 먹으려다 들켰다. 관찰은 아이의 상상을 자극한다.</p>	
8	<div>모모와 토토</div> <div>김슬기</div> <div>보림출판사</div> <div>2019</div>	<p>모모는 바나나 우유랑 야구를 좋아한다. 모모에겐 단짝 친구가 있는데, 바로 토토이다. 모모와 토토는 오늘도 함께 논다. 모모는 소중한 친구인 토토에게 무엇이든 해 주고 싶었다. 노란 풍선을 선물하고, 노란 모자를 골라 주고, 노란 꽃다발도 안겨 주었다. 그런데 토토는 이제 모모랑은 놀지 않겠다고 쪽지를 두고선 떠나 버렸다. 토토는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모모와 토토의 우정은 어떻게 될까?</p>	
9	<div>사탕 트리</div> <div>백유연</div> <div>웅진주니어</div> <div>2020</div>	<p>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날. 동물 친구들은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든다. 솔방울, 나뭇잎, 도토리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와 예쁘게 장식한다. 여기에 고라니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동물 친구들의 마법 같은 선물을 만나 보자.</p>	
10	<div>시소 나, 너 그리고 우리</div> <div>고정순</div> <div>길벗어린이</div> <div>2020</div>	<p>우리네 고단한 삶에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연대와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있다. 기다란 시소 양끝에서 소년과 소녀가 서로의 눈을 맞추며 함께 발을 구를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시소 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작가 특유의 힘 있는 글과 그림으로 진지하면서도 다정하게 풀어냈다.</p>	

>> 3단계 꾸욱꾸욱(4~5세 대상)

11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윤여림	창비	2017	
	윤여림 작가가 성장해가는 아이에 대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안녕달 작가가 예의 따뜻함을 가득 담아 그림을 그렸다. 엄마의 몸에서 나온 아가는 까꿍 놀이를 시작으로 점점 엄마 품을 떠나는 연습을 한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날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떼를 쓰고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는, 어느새 혼자 유치원 버스를 타고 캠프를 떠날 만큼 자랐다.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진 엄마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하루를 건딘다.				
12	작은 연못	김민기	창비	2021	
	<위를 봐요!>, <벽> 등의 작품을 펴내며 불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 상을 두 차례 수상한 작가 정진호가 그림책 <작은 연못>의 그림을 맡았다. 70년대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해석되어 온 곡의 노랫말에 작가 정진호가 시각적 은유를 더해 오늘날의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일깨운다.				
13	지구의 일	김용택	바우솔	2021	
	책을 보며 지구가 해내는 일들을 하나씩 헤아리다 보면, 감탄과 더불어 절로 자연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로 여러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새로운 눈으로 지구와 자연을 바라보며 소중한 지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해볼 것이다.				
14	평범한 식빵	종종	그린북	2021	
	저마다 다른 개성과 특성을 다양한 빵에 비유하고, 모양도 맛도 아무런 특색이 없는 평범한 빵, 식빵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울퉁불퉁 근육을 자랑하는 크루아상, 겉이 매끈하고 속은 짭 찬 단팥빵 등 글과 그림의 표현이 신인 작가답지 않게 기발하고 짜임새가 있다. 평범함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에 빗대어 이야기해서 쉽고 재미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15	한코두코	이황희	계수나무	2022	
	할머니는 매일매일 뜨개질을 한다. 모자와 장갑은 물론이고 아이가 제일 아끼는 인형과 스웨터도 모두 할머니의 솜씨이다. 할머니가 뜨개질할 때면 아이는 그 곁에서 남은 실로 실뜨기를 한다. 때로는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가기도 하고, 별이 좋은 날엔 뜨개질하는 할머니 곁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자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일곱 밤 자고 나면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구급차를 타고 떠나는데....				